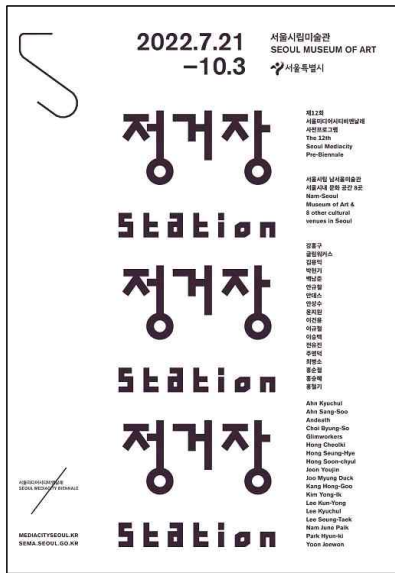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개최



전시명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The 12 th Seoul Mediacity Pre-Biennale Station
전시기간	2022. 7. 21 ~ 10. 3
전시장소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시내 문화 공간 8곳
전시부문	사진, 조각, 설치, 비디오, 자료 등 39점
참여작가	강홍구, 글림워커스, 김용익, 박현기, 백남준, 안규철, 안데스, 안상수, 윤지원, 이건용, 이규철, 이승택, 전유진, 주명덕, 최병소, 홍순철, 홍승혜, 홍철기

- 1996년부터 동시대 서울과 미디어 환경을 주목했던 《도시와 영상》 전시로 출발하여, 2000년부터 비엔날레 형식으로 거듭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5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 개최
-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디어 사유의 경험을 나누며, 실험적인 미술 생산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고유의 정체성에 초점
- 국내 유일의 미술관 직영 비엔날레로서 소장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적 맥락을 형성하고자 출판, 전시, 참여형 워크숍으로 구성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지난 25년간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미술의 동시대성을 주목해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을 개최한다. 본 프로그램은 내년 7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과 서울 시내 문화공간 8곳에서 진행된다.

- 본격적인 사전프로그램을 개최하기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지난 역사를 스토리텔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996-2022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 비엔날레의 주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 미술 제도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한 ‘백서’다. 그동안 비엔날레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 참여 작가와 작품 등의 정보와 분석 텍스트를 담고 있는 이 출판물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자원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발전회의를 조직하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996-2022 보고서』에 수록된 역사적 서술을 바탕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정체성과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발전회의에 모인 서울시, 미술관 운영, 미술

현장, 홍보와 시민 관객 등 외부 전문가 13인은 그동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변화하는 도시와 미디어를 주목하고 동시대 미술의 실험과 실천을 생산하는 장으로서 고유의 정체성에 동의하며, 향후 진행되는 비엔날레에서 다양한 참여 방식과 홍보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은 역대 최초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을 공개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최되는 본 사전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프리비엔날레다. 출판, 전시, 참여형 워크숍, 커뮤니케이션으로 편성된 본 프로그램은 도시 서울을 다양한 특성의 네트워크이자 매체로 바라보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체성의 연장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을 ‘정거장’ 삼아, 서울 시내 문화 공간 8곳은 ‘위성 정거장’이 되어 공통된 작품(글림워커스의 <SMB 리믹스>)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은 지난 역사에서 축적해 온 고유의 자원을 주목하고, 지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며, 자생적인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전시 제목인 “정거장”은 지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역사를 환기하고 미래의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에 잠깐 머무르는 시간이자 장소를 지칭한다. 전시는 1996년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부터 2002년 미디어_시티 서울 《달빛 흐름》에서 소개되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재현 이전에 분할과 반복, 복사와 증식, 소통과 흐

름, 동시대성과 가상성 등 미디어아트 본연의 성질을 고찰할 수 있는 조각, 사진, 회화, 설치 작품과 현재진행형인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축적해온 25년의 역사와 의미를 조망한다.

-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감행했던 새로운 미디어 실험을 주목하고, 비엔날레라는 일시적인 제도 위에서 생겨나는 미술적 실천과 사유를 미술관이라는 영구적인 제도 안에서 자원으로 보존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에서 전시장 안과 밖을 연결했던 홍순철의 <도시폭포>(1996)(재제작)
 -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는 일찍이 전시장으로 상징되는 미술 제도의 경계를 가로질러 도시 환경으로 다가간 예술 작품의 유기적인 향유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는 홍순철의 <도시폭포>는 도심의 공공장소이자 일상의 공간을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 변기를 전시장에 놓고, 여기에 연결된 모니터와 도심 전광판에 같은 영상을 틀어 작품의 감상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 이번 전시에서는 비디오가 연결된 변기 설치물을 재제작하여 전시장에서 설치 작품으로 소개하며,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입구에 있는 미디어 보드에 영상 작품의 스틸 이미지를 틀어 과거처럼 안팎의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재현한다.
- 전례 없이 거대한 규모로 조직된 미디어_시티 서울 2000을 축하하며 전 세계인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백남준의 <시장>(2000)(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 1990년대 중후반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위해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

왔던 작가 백남준은 《미디어_시티 서울》은 물론이고, 《도시와 영상》이 조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 <시장>은 처음으로 개최된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에서 소개했던 작품으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다채널의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와, 한복, 현대적 의복, 거리의 좌판, 파라솔, 냉장고, 모자, 부채 등 과거와 현재 도시의 일상을 점유하는 각종 오브제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 동시대 서구 현대미술의 중요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기회에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잘 전해진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시청각 자료를 주요 자료로 삼아, 비엔날레의 지난 역사를 비디오와 이미지로 콜라주한 글림워커스의 <SMB 리믹스>

- 글림워커스의 <SMB 리믹스>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25년 시청각 자료를 재구성한 비디오와 이미지 콜라주 작품이다. 지난 전시의 홍보물, 개막식과 프로그램 기록, 참여자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동시대적 시선으로 재구성하였다.

- ‘서울,’ ‘비엔날레,’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풀어낸 비디오 3편, 그리고 이미지 구성물은 서울 시내 문화 공간 8곳에서 여러 형태로 변주하며 같은 기간 동안 전시된다.

- 지난 11회 비엔날레에서 시도했던 유통망 프로젝트의 연장에서, 이번 사전프로그램에 이어서 참여하는 협력공간은 시민청, 루이스의 사물들, 라운드앤드(중구), 서울기록원(은평구), 미도파 커피하우스(서대문구), 콜로라도 프로젝트, 오브젝트 홍대점(마포구), 오잇(용산구)다.

□ 이번 전시에서는 기술적 형식이나 형태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미디어아트를 벗어나, 예술을 보고 인지하는 경험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어적' 성격에 주목한다. 한국의 현대미술사에서 있었던 여러 미학적 실험과 시도의 연장에서 지난 비엔날레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위치를 가늠해 본다.

○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에서 '디지털 합성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체 실험을 통해 사실적 재현을 극대화한 강홍구의 <해수욕장 시리즈>(2002)(재제작)

- 강홍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잊혀가는 주변의 풍경을 미술 언어로 기록하며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주제를 탐구해왔다. 작가는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디지털 합성이나 채색을 통해 고유의 시각 언어를 구축해왔다.

- 긴 파노라마 프레임에 담은 해수욕장 풍경 안에는 소외된 존재, 인물, 관계, 근대와 폐허를 지시하는 우리 동시대 문화의 파편들이 모여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기호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는 보편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지역의 존재를 드러내며 현실 세계를 재현한다.

- 이번 전시에서는 2002년에 발표했던 작품 4점 중에서 2점을 재제작하여 소개한다.

○ '구형으로 환원된 공간'이라는 작가적 명제를 사진-조각 형태로 발전시켜 고유의 예술적 언어를 만들었던 이규철의 <공간과 시지각>(1988-1994)

- <공간과 시지각>은 둥글게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데로 재현하고자 했던 이규철의 '사진-조각' 연작을 칭하는 제목이면서, 그의 작업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어이다.

- 대학을 졸업하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개인전(관훈미술관, 1988)에서 작가는 육면체로 된 나무 박스에 음각으로 만든 반구 형상, 그리고 구로 이루어진 형상을 만들어 그 표면을 사진으로 감싼 <공간과 시지각> 작품을 소개하였다.

- 그의 조각이 그리는 둥근 형상은 다면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표면에

맞춰 작게 재단하여 붙인 이미지들은 입체적인 모자이크로 조각의 전체를 감싼다.

- 이규철은 입면의 조각만이 아니라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입면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도 있었다. 조금씩 시점이 다른 수백 장의 사진을 격자로 배치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평면 이미지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각을 움직이는 ‘무빙 이미지’가 되어 가상의 시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 <공간과 시지각>을 재해석하여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다락 공간에 맞춰 새로운 맥락을 더한 홍철기의 <둥근 규철의 안쪽>(2022)과 <가벽>(2022)

- 홍철기는 이규철이 <공간과 시지각>에서 탐구한 ‘둥글게 보이는 세계에 대한 재현’에 새로운 해석과 맥락을 더한 장소 특정적 작업을 소개한다.
- <둥근 규철의 안쪽>은 이규철의 반구형 ‘사진-조각’과 유사한 형태의 조각에 영상을 투사하는 ‘비디오-조각’이다. 작품의 안쪽 면에 투사되는 영상은 홍철기의 영상 작업 <언저리>를 프로젝션 매핑으로 변환한 디지털 무빙 이미지로,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창고, 휴게실, 보일러실이나 복도 구석과 같은 소외된 공간을 생생하게 투영한다.
- <가벽>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다락 공간의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벽면의 ‘집’ 형태와 유사한 모양을 가진 구조물에 기존의 벽 너머 존재하는 실재 세상을 촬영한 이미지를 프로젝션 매핑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비디오-조각’이다.
- 이 작품은 ‘보기’에서 시작되는 시각 예술의 세계, ‘지각’을 통해 가상의 시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미술의 원초적 경험, 그리고 새로운 창작의 터전이 되는 제도로서 비엔날레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다.

□ 이번 사전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에 시도되었던 작가의 상상력과 실천이 일면 변함없이 이어지거나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러한 예술적 실험을 주목하고 보존하는 터전이자 제도가 되는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상기하고자 한다.

○ 지구의 움직임과 기원을 탐색하는 지질학과 테크노음악을 연결해서 에너지의 이동을 경험하는 안데스의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2022. 프로그램)(신작)

-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는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지진파’를 ‘음파’로 전환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장소를 사운드로 경험하고 상상하는 새로운 테크노음악 창작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 7월 23일 토요일부터 8월 27일 토요일까지 6주간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강연: 오픈 리서치’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지만 잘 지각할 수 없는 지진, 파동과 사운드의 시각화, 에너지의 이동, 기계 악기에서 추출하는 사운드로 만드는 음악과 기계 문화를 주제로 지진학자, 음악 저널리스트, 테크노 뮤지션, 실험물리학자, 기계 비평가를 전시장으로 초대해 관객과 함께 전문 지식을 알고, 배우며, 질문한다.

-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제작 워크숍에는 지진학 연구자, 테크노 뮤지션, 오디오 엔지니어가 참여하여,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장소에서 추출한 지진파를 사운드로 변환하고, 지질학적 상상력을 펼치는 새로운 음악을 제작할 것이다.

- 전시의 마지막 주말(10월 1일, 2일)에 진행되는 작가의 렉처 퍼포먼스는 지난 리서치의 결과를 관객들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완성된 새로운 테크노음악을 DJ 라이브로 감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기술 문화에 관한 질

문을 찾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인 해석을 도모하는 전유진의 <코드 밀 키트>(2022, 프로그램)(신작)

- <코드 밀 키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드’로 상징되는 현대의 기술 문화를 둘러싼 자료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사회적 번역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 7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10주간 진행되는 워크숍은 언어로서 코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IT신화, 문화 자본, 오픈소스와 같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기능,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편향된 인식에 묶인 코드에 관한 고정관념을 언어와 문화로 확장해서 관찰하고 흥미하고 의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주제별로 10명씩 다른 참여자를 모집하는 워크숍은 주마다 다른 메뉴로 구성된 가상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듯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참여자 모두의 생각과 고민은 카드 형태로 정리되어, 또 다른 배움의 방식을 제안하는 교구로 완성될 것이다.

□ 서울시립미술관 백지숙 관장은 “이번 사전프로그램은 《서울미디어 시티비엔날레》의 25년 역사를 정리하고, 기존의 미술 창작과 실험에 대안적인 플랫폼을 제시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본연의 위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 한편, 2022년 6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는 매호 다른 주제어에 맞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소장 자료를 다시 꺼내어 읽는 또 하나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스토리텔링이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지난 데이터와 현재진행형 콘텐츠를 연결

해서 새롭게 읽고 감상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매월 10일 구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메일로 발송하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웹사이트(<https://mediacityseoul.kr>) 에서도 읽을 수 있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공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본 전시와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다락에 설치한 작품은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에서는 음성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고,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에는 도슨트의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다락 공간 전시관람 사전예약: <https://forms.gle/AYdNNTAtHNAgPmwE7>
 - 전시도슨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네이버 오디오클럽을 통해서도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 서울시립미술관 대표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useumofart](https://www.instagram.com/seoulmuseumofart)
 - 트위터: twitter.com/SeoulSema
 -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붙 임

1. 전시 전경 설명
2. 주요 작품 설명
3. 작가 연혁
4. 전시 정보


1. 전시 전경 설명

※ 모든 이미지에 사진 정보의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경 사진	사진 정보
	<p>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경, 2022. 사진: 이의록</p>
	<p>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1층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p>
	<p>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층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p>

2. 주요 작품 설명

※ 모든 이미지에 사진 정보의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품 사진	작품 정보
	<p>글림워커스의 <SMB 리믹스>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25년 시청각 자료를 재구성한 비디오와 이미지콜라주 작품이다. 지난 전시의 홍보물, 개막식과 프로그램 기록, 참여자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동시대적 시선으로 재구성하였다. 서울, 비엔날레,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풀어낸 비디오 4편, 그리고 이미지 구성물은 서울 시내 문화공간 8곳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시된다.</p> <p>▶ 협력 공간: 시민청, 루이스의 사물들, 라운드앤드(중구), 서울기록원(은평구), 미도파 커피하우스(서대문구), 콜로라도 프로젝트, 오브젝트 흥대점(마포구), 오잇(용산구)</p>

(위)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 2022. 서울기록원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가운데)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 2022. 마포구 오브젝트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아래)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 2022. 마포구 콜로라도 프로젝트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위) 홍순철, <도시폭포>, 1996(2022 재제작).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아래) 홍순철, <도시폭포>, 1996(2022 재제작). 8분 55초(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는 일찍이 전시장으로 상징되는 미술 제도의 경계를 가로질러 도시 환경으로 다가간 예술 작품의 유기적인 향유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홍순철의 <도시폭포>다. 도심의 공공장소이자 일상 공간을 대변하는 상징처럼 전시장에 놓여있는 변기, 그리고 변기에 연결된 비디오는 전시장 밖의 전광판에 수도 없이 많이 노출되는 일상의 이미지 사이에서 행인-잠재적 관람객과 마주한다. 서울의 여러 공간을 네트워킹하는 가상의 자연에 관한 구성은 드로잉 작품에 상세히 남아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입구의 미디어보드에서 작품의 스틸 사진을 표출하여 전시장의 안과 밖을 연결한다.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 기록 영상, 1996.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의 전시 제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표방되는 도시의 과거와 미래라는 시공간을 암시한다. 전시 도록에서 기획자 김진하는 프로젝트가 “전근대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가능성이 혼재하는 영상시대로의 전환기에 도시문화와 삶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와 같은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도심 전광판을 비롯한 도시 호나경속으로 침투하는 상황 자체를 전시 프레임으로 전환한 발상과 실현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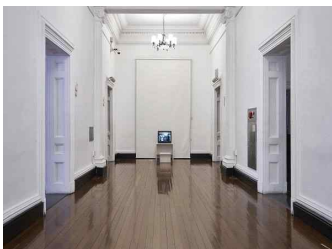
백남준, <시장>, 2000, 모니터 25대에 2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 그리고 혼합 재료, 340 × 400 × 100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전시전경, 2022. 사진: 이의록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1과 0사이》의 다섯 개 프로젝트 중 <이스케이프>에서 소개되었던 이 작품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박현기와 백남준은 1996년 《도시와 영상》과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 조직되는데 큰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들이다. 비디오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의 시간성을 주목하고, 미술이 진정한 소통과 사유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에 거침없었던 백남준은 이 작품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 어린 기억과 혼재된 현재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이 작품은 15개의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마 한복, 의복, 파라솔, 냉장고, 모자, 부채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로 구성된 설치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조직된 《미디어_시티 서울》을 자신만의 언어로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서구 현대미술의 중요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먼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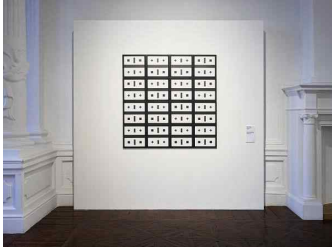
박현기, <물 기울기>, 1979, 크로모제닉 프린트, 각 50 x 60 cm (4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전시전경, 2022. 사진: 이의록

<물 기울기>는 한국의 비디오 아트 선구자로 불리는 박현기가 활동 초기에 소개했던 작업이다. 1979년 제15회 상파울루비엔날레를 통해 해외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물 기울기>는 작가가 물이 담겨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텔레비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기록 사진이다. 텔레비전을 들고 있는 각도에 따라 화면에 비치는 물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네 장의 사진 시퀀스는 비디오라는 매체를 관념적인 대상이면서 미술적 수단으로 역전시킨다. 이렇게 비디오를 단순하고 개념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박현기만의 독창적인 예술 언어가 된다. 상파울루에서는 일곱 가지의 다른 자세를 취한 기록을 흑백으로 소개했고, 이 작품은 네 장면을 별도로 선정해 컬러로 인쇄한 이미지다.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 사이》 <지하철 프로젝트: 퍼블릭 퍼니처> 기록 영상, 2000.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전시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지하철 프로젝트: 퍼블릭 퍼니처>는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 사이》의 다섯 프로젝트중 하나로 서울시 13개 지하철 역사를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 시스템'으로 전이하여 작가 24명/팀의 공공 예술 작품 24점을 소개하였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미술 작품을 마주하는 경험이 드물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이러한 시도가 파격적이었다.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작가 대부분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사실은 서울이라는 특정도시의 맥락을 읽고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의 성격을 잘 설명해준다.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1999, 카드보드에 실크 스크린, 합성수지 코팅, 나무. 각 26 x 26 x 2.5 cm (16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전경, 2022. 사진: 이의록

픽셀, 검은색과 흰색, 단순화된 형태와 움직임의 반복, 사각의 프레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홍승혜의 <유기적 기하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1999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이후 무빙이미지와 설치 형태로 변주하며 확장되는 작품의 미래를 예고하는 시퀀스이자 원화와 같다.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로 소개되었다.



강홍구, <해수욕장 시리즈>, 2002(2022 재제작). 디지털 사진, 각 61 x 183 cm (2점).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강홍구는 1990년대부터 시대적 풍경을 재현하는 포토몽타주 연작, 사진의 기록적 속성과 회화의 행위적 속성을 결합한 '사진-회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매체 실험을 하며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구축해왔다. <해수욕장 시리즈>는 2000년대부터 진행된 디지털 합성사진 이미지로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에서 처음 소개된 작품이다. 긴 파노라마 프레임에 담은 해수욕장 풍경 안에는 소외된 존재, 인물, 관계, 근대와 폐허를 지시하는 문화의 조각들이 모여있다. 이와 같은 현실 기호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는 '보편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고 현실로 우회하는 통로를 제시한다.



이규철, <공간과 시지각 1986-1과 2>, 1986, 나무, 종이에 인화, 31.5 x 52 x 12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공간과 시지각>은 구형으로 지각되는 세계를 보는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을 연구했던 이규철의 '사진-조각' 제목이면서 작업 개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12년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개인전(관훈미술관, 1988)에서 작가는 육면체로 된 나무 박스에 음각으로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진 반구형상 표면을 사진으로 감싼 작품을 소개한다. 반구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면체인 조각의 표면에 맞춰 작게 재단된 이미지의 파편들은 입체적인 모자이크가 되어 표면을 구성한다.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거대한 조각의 내부로 들어가 둥근 표면에 반사된 이미지를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둥글게 보이는 세상을 마주하고 진실에 가까운 '보기'의 세계로 안내한다.



(좌측) 이규철, <공간과 시지각 1988-4>, 1988, 종이에 인화, 75.5 x 105 cm. 개인 소장

(우측) 이규철, <공간과 시지각 1988-1>, 1988, 종이에 인화, 40 x 80 cm. 개인 소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공간과 시지각 1988-4>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형상의 조각 앞에서 주변을 둘러싼 높은 빌딩을 올려다 보는 도심 풍경을 재현한다. 이 평면 이미지는 수 백장에 이르는 직사각형의 작은 사진을 이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한다. 고개를 움직여 둘러보지 않으면 한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풍경이 하나의 화면 속에 펼쳐진다.

<공간과 시지각 1988-1>는 하늘과 바다가 수평선을 가운데 두고 펼쳐지는 풍경을 평면으로 재현한다. 작품은 수백장의 직사각형으로 분할된 사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데, 각각의 사진이 조금씩 다른 시차에서 기록하는 같은 풍경을 보여 주어서, 이 모두를 한꺼번에 보면 각각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은 둥근 표면에 평면의 사진을 쪼개어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로 만든 '사진-조각'의 반대편에서, 평면이 입면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었다.



홍철기, <둥근 규철의 안쪽>, 2022, 비디오 조각. 가로 120 cm (조각), 3분 (프로젝션 맵핑 영상).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홍철기는 이규철의 <공간과 시지각> 구형 다면체와 유사한 아크릴 조각을 만들어 작품의 안쪽에 자신의 비디오 작품 <언저리>(2020)을 투사하는 비디오-조각 <둥근 규철의 안쪽>을 완성한다. 이 영상은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지만 잘 볼 수 없는 창고, 휴게실, 보일러실이나 복도 구석과 같은 소외된 공간을 재현한다. 작품이 위치한 다락 공간 역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건축물이 가진 이질적인 양식과 대비되는 알 수 없는 건물의 내면과 같다.



전유진, <코드 밀 키트>, 2022, 프로그램, 협업 아티스트: 김승범, 정앓, 코드 브루 티마스터 : 김화용,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코드 밀 키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드'로 상징되는 현대의 기술 문화에 관한 질문을 찾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인 해석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7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10주간 진행되는 워크숍은 언어로서 코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IT 신화, 문화 자본, 오픈소스 등 소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기능,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편향된 인식에 묶인 코드에 관한 고정관념을 언어와 문화로 확장해서 관찰하고 흥미하고 의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각각의 워크숍은 사전에 공유한 읽기 자료를 통해 각자의 질문을 가진 10명의 참여자를 회마다 다르게 모집하고, 매주 다른 메뉴로 구성된 가상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듯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참여자 모두의 생각과 고민은 카드 형태로 정리되어, 또 다른 배움의 방식을 제안하는 교구로 완성될 것이다.

(프로그램 일정 참조: <https://codemealkit.github.io>)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2022, 프로그램, 협업 뮤지션: ZEEMEN, XANEXX,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는 지구의 움직임을 디지털 정보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지진파'를 '음파'로 전환하여, 직접 갈 수 없는 장소를 사운드로 경험하고 상상하는 새로운 테크노음악 제작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6회의 강연, 4회의 워크숍과 2회의 렉처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있다.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강연은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지만 잘 지각할 수 없는 지진, 파동과 사운드의 시각화, 에너지의 이동, 기계 악기에서 추출하는 사운드로 만드는 음악과 기계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을 알고, 배우며, 관객과 함께 질문하고 이해하는 시간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작 워크숍은 지진학 연구자, 테크노 뮤지션, 오디오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며,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장소에서 추출한 지진파를 사운드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고, 지질학적 상상력을 펼치는 실험의 과정이 된다.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작가의 렉처 퍼포먼스는 그동안 진행된 리서치의 결과를 관객들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완성된 새로운 테크노음악을 DJ 라이브로 감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일정 참조: <https://geotechno.xyz>)

3. 작가 연혁

강홍구(1957년생)는 1992년 첫 개인전을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잊혀져가는 풍경을 미술 언어로 기록하며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주제를 탐구해 왔다. 작가는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디지털 합성이나 채색을 더해 고유의 시각 언어를 구축해 왔다. 주요 작품으로 <오소리 풍경>(2004), <미키네 집>(2005-2006),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2009), <그 집>(2010), <녹색연구>(2012) 등이 있고,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달빛 흐름》(2002)에 참여한 바 있다.

글림웍스(2020년-현재)는 사진, 영상, 설치,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현대미술 작가 콜렉티브이다. 이 팀은 전시 기록부터 작품 생산까지 필요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 규모와 위치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에서는 노승표, 이희인, 홍한나 작가가 참여하여 비엔날레에 축적된 시청각자료를 콜라주하고, 서울시내 문화공간을 재해석하며,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박현기(1942년-2000년)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재현속에 동양의 정신문화를 담는 개념으로 한국적 비디오아트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6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동료들과 함께 비디오, 해프닝, 퍼포먼스 등 새로운 매체를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백남준의 <글로벌 그루브>(1973) 영상을 접한 이후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다루게 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도심을 지나며>(1981), <전달자로서의 미디어>(1982), <현현>(1997) 등이 있다.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1996)과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2000)가 조직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백남준(1932년-2006년)은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이자 21세기의 디지털적 세상을 예견하는 활동을 만들었던 입지전적 인물로, 세계 미술사에서의 위치만큼 한국 미술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었다. 한국전쟁즈음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 음악을 공부하고, 이후 독일과 미국에서 플럭서스와 같은 전위 미술 운동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35년 만에 고국인 한국을 다시 찾게 된다.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 영구 설치된 <서울랩소디>(2002)에서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바이바이 키플링>(1986) 등 잘 알려진 백남준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1996)과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2000)가 조직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안데스(1979년생)는 일상의 환경, 놀이, 오브제, 사운드와 같은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사용하는 작업을 만들어 왔다. 씬지 아트디렉터(2006-2009), 동요트리뷰트밴드 부추라마(2006-2012)로 활동했으며, 매일 입었던 복장을 기록하는 <데일리 코디>(2006-2013)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최근에는 산의 형성과정을 제빵으로 추적하는 <지질학적 베이커리>(2019-2021)와 서울의 산을 탐험하고 주변환경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찾아내는 워크숍 <빵산별원정대>(2020-2021)를 진행한바 있다.

이규철(1948년-1994년)은 1980년대부터 사람 눈의 작동원리와 유사한 사진기의 평면 재현을 조각이라는 입체적 형상으로 결합한 <공간과 시지각> 연작을 발표했다. 구형으로의 환원이라는 작가적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360도로 회전하는 삼발이, 구에 가까운 다면체 형상, 사진과 조각이 만나기 위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자신만의 시지각 세계를 완성하였다. 인간의 시각적 재현이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현실의 공간을 온전히 옮기고 체험하는지를 질문했던 작가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디어아트에 관한 근원적인 지점부터 생각하게 한다.

전유진(1981년생)은 2011년부터 사운드, 퍼포먼스,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업을 선보여왔다. 도시 기술 환경에 내포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해소하고자, 여성주의적 이해와 실천을 기반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다.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익스프레스》를 통해 다원적인 요소로 서사적 실험을 만들어 왔고, 2017년부터 진행된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에서는 기술 문화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워크숍, 강연과 연구모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홍순철 (1955년생)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미디어가 다루어 온 현대사, 개인, 그리고 생태주의적 사고 방식을 영상과 설치의 방식으로 구현해 왔다. 주요 전시로는 《빛과 소리 속에서》(서울화랑, 서울), 《검은 강》(한강미술관, 1989), 《검은 강, 숨은 숲—6 Senses》(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2019) 등이 있다.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1996)에 참여한 바 있다.

홍승혜 (1959년생)는 1997년부터 픽셀을 기본으로 하는 회화와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업을 소개해 왔다. '유기적 기하학'이라 부르는 그의 작업 개념은 단순한 픽셀 형태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이것을 배양하고 확장하는 작품의 전개 방식을 일컫는다.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1998)부터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2002), 미디어 시티 서울 2008 《너에게 주문을 건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 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까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최다 참여자다.

홍철기(1981년생)는 현대의 생활권에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풍경을 포착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만들어 왔다. 도시와 도시 주변환경 속의 이질적인 존재들, 분류나 판단을 보류한 채 경계에서 부유하는 대상들을 기록했던 일련의 프로젝트는 최근의 개인전 《맹지》(합정지구, 2015), 《공중》(산수문화, 2017), 《언저리》(쇼앤티, 2020)에서 소개되었다.

4. 전시 정보

- 전시 장소: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시내 문화 공간 8곳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 협력 공간: 라운드앤드(중구), 루이스의 사물들(중구), 미도파 커피하우스(서대문구), 서울기록원(은평구), 시민청(중구), 오브젝트 홍대점(마포구), 오잇(용산구), 콜로라도 프로젝트(마포구)

- 전시 기간: 2022. 7. 21.(목) ~ 10. 3.(월)

- 관람 시간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화요일-금요일 10:00-20:00, 토, 일, 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협력 공간: 공간별 상이

- 입장료: 무료

- 연계 프로그램
 - 도슨트 해설: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2시
 - 작가 기획 프로그램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웹사이트(<http://mediacityseoul.kr>) 참조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방식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기본 정보

- 전시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 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
- 홍보 문의: 교육홍보과장 봉만권(02-2124-8912/ go1107@seoul.go.kr)
학예연구사 유수경(02-2124-8928/ skyoo@seoul.go.kr)

**작품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http://sema.webhard.co.kr>)
- 로그인(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남서울미술관] 폴더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정거장》] 폴더)